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석과 향후 전망

신 범 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제가 학자이긴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소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쟁은 '3중 전쟁'의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내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즉 '돈바스 전쟁'이라 부르는 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바스 전쟁은 2014년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면서 발발하였고, 그 해법인 민스크협정이 준수되지 못하면서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입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입니다. NATO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와 이를 막으려는 러시아 사이의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 못지않게 또 중요한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려 하는 서방과 지정학적 현실주의 원리를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지구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쟁의 의미를 모두 들여다 보아야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는 배경을 구성하는 전쟁의 원인(遠因)은 우선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해체된 이후에 등장한 러시아로서는 유럽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경영 속에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에 국내 정치적인 혼돈과 체제 전환에 고통 과정에서 러시아는 약화되었고, 러시아가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체 서방이 중요한 파트너로 수용하려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냉전 이후 유럽 안에서는 유럽의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대서양주의'의 입장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유럽 안보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유럽 국가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주의자'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주의 안에서는 다시 러시아를 포함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유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미국부터 러시아까지 다 포괄하는 커다란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대서양주의 입장을 구현한 조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고, 유럽주의를 구현한 조직이 당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이것이 후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분화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90년대 논쟁을 거치면서 90년대 후반에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NATO가 유럽 안보질서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NATO 가입은 허용되지 않았고, 러시아를 배제한 상태에서 유럽 안보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럽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NATO가 점차 동방으로 확장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동방으로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NATO의 군대가 신규 NATO 가입국에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와 NATO 사이에서의 협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약속은 점차 무시되었다는 점이지요. 신규 NATO 가입국이 된 국가에 미군의 공군기지가 들어서고 NATO 군대가 배치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가 배치된 것은 러시아에게 상당한 정도의 압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당장 벌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유럽 연합 및 NATO에 가입하는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서방 국가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에서 독립한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국가들이 NATO에 가입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커다란 위협이라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이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미국이 느꼈던 만큼의 위협이라는 거지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은 그런 수준의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유럽의 안보질서 체제는 러시아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런 사고에 따라 러시아가 자신의 전략을 수세적 수비에서 공세적 수비로 전환하면서 서방과 갈등이 높아진 것이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러시아 견제책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의 유라시아의 전략에서,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에도 상당한 군사적 강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에, 러시아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 미국의 국방안보 정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당시 월포비츠 국방장관이 표명한 이 입장은 후에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쓴 '거대한 체스판'에서 자세하게 표명되었는데, 이 책에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국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현 사태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방안보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측면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근인(近因), 즉 지금 이 전쟁에 이러한 배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게 될 경우, 러시아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고 격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지아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의 경우 분리주의 분쟁 조건으로 NATO 가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같은 분리주의 세력을 척결하고 영토적 완결성을 이루기 위해 남오세티야를 공격한 것이지요. 하지만 러시아가 자신이 후원·지지하던 이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격을 좌시하지 않고 개입하고 들어가면서 조지아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조지아와 같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NATO에 가입시킴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약화를 시도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NATO 가입 추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확실하게 충돌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이 국가들의 급속한 NATO 가입 추진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해왔다는 것입니다. 2013~4년 우크라이나에서 유클로마이단 혁명이 발생하면서 친러정권이 퇴출되고 친서방적 정권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이던 집단들과 지역 그리고 분리주의를 주창하고 있었던 돈바스 지역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적용되며, 인종주의적인 테러에 해당하는 사건들도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정치에서 친서방, 반러시아적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내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강화로 연결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이런 우크라이나의 반러, 친서방 민족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민족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전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작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12월 들어서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위기를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실제로 러시아가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증원시키고 있다는 첩보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이었을 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위협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쟁설을 유포했다는 점이고 유럽과 나토의 장교들도 미국이 위기를 증폭시켜 전쟁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불평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대한 경고를 강력히 제기한 이유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확실하게 전쟁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추측으로는 전쟁설을 유포시킴으로써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후자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견했던 전문가들조차 만약 한 조건이 문제가 될 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돈바스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지아 전쟁 사례를 바탕으로, 동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진다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조심시키거나 다른 외교적 해법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다면적인 '외교의 시간'이 6~7주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의 기회가 열려 있었을 때, 미국이 러시아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쟁위기를 강조한 것은 결국 국제사회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두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켰다는 점은 어쩌면 미국 외교의 의도하지 않은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임박성을 강조함으로써 외교의 여지를 줄였다는 면에서는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 중재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중립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러시아도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를 일축해버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양측 또는 여타 당사자들이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못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연설의 대목과 연결해 볼 때 더욱 큰 울림이 됩니다.

외교의 시간이 점차 닫혀 가고 있는 시간 동안, 푸틴 대통령이 군사력의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시점이 1월쯤이라 생각되는데, 그즈음에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이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여간 지속되었고, 민스크협정을 통해 정전되는 듯 했습니다. 이 민스크협정

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와 독일이 참가하는 노르망디 포맷으로 이루어진 합의인데, 그 주요 내용은 양측의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 주권 영역 속에 남아 있던 자치권을 가지면서 러시아와의 교류와 소통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돈바스 지역을 공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7년 넘는 이 돈바스 전쟁을 통해서 1만 5천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고, 250만 명에 이르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계 주민이 망명이나 추방 내지 피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돈바스 전쟁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유럽의 안보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1-2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돈바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는 상황은 러시아에 의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공화국의 국가 승인 조치로 민스크협정의 파기와 함께 전쟁 발발로 귀결됩니다. OSCE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1월 24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이미 3천여 건 이상의 민스크 협정 위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OSCE 보고서 기록에 의하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의 안쪽에 조금 더 많은 폭발과 폭격이 상당한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시기 약 13만 명 가까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돈바스 지역을 공략하고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2월 23일과 24일 사이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뒤 군사 작전을 지시하는 일련의 사태가 이어집니다. 즉, 이번 전쟁이 촉발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민스크협정의 지속적 불이행과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공세가 강화된 것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쟁의 원인과 근인 그리고 촉발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과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까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러시아의 중대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NATO 가입 포기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요청입니다. 둘째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돈바스 지역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휴전과 평화를 위한 회담이지만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조정을 요구하며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요구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전쟁을 개시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이 용어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목표를 천명한 부분입니다.

러시아 군사력의 비체계적이 모습이 서방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군사 작전을 통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중요한 군사적 거점과 인프라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상당한 기간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각도에서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조건은 러시아 군사 작전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나치화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나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이후 포로셴코 대통령 정권은 극우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아조프대대라 불리는 극우민족주의 무력단체가 우크라이나 정부군 안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돈바스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친러시아계 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이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우폴에 대한 격렬한 공격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목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논자들이 이 전쟁을 푸틴 대통령의 '레방쉬즘'이라 분석하는 이유 역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보복해서 갚아주겠다는 보복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모델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스위스식으로 어떠한 정치경제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경제적으로는 서방과 교류하지만, NATO와 같은 군사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고자 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식 중립화 모델은 스칸디나비아 방식에 주변국들과 UN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문서로 보장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문제는 동부의 두 공화국의 독립과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인데, 이를 우크라이나가 인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강성 우파세력들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할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지에 흩어진 다양한 무력 집단들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내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할 것입니다. 외교의 시간 동안에, 외교적 해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망명 권유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저항을 이끌면서 영웅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되고 러시아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지만, 러시아와 타협을 하고 싶어도 내부적인 우파들의 반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와해되거나 분열된 모습으로 가게 될 경우, 훨씬 파괴적인 결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입니다.

어렵사리 절충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NATO 가입을 포기하되 우크라이나식 중립국가 모델을 차용하며, 돈바스 지역 독립을 승인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러시아는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서부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에 이르는 지역과 가능하다면 남부 해안지대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우크라이나를 분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는 굉장히 논쟁적인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발을 빼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남겨두고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전쟁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피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피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정치적인 영향을 예상해 보는 건 조금 좀 설부른 면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럽 안보질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포함하는 유럽 안보질서를 만드는 데 결국은 실패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와 대립하는 유럽의 안보질서가 구축되었지요. 동시에 러시아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아야 논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유럽의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방이 단합된 대오를 얼마나 잘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유럽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유럽 안보질서 구축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어려운 조율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독일의 무장과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냉전의 종식입니다. 탈냉전 시기에는 냉전의 이념적 대립과 진영 논리에 입각한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만들고자 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구질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탈냉전이 끝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중심의

세계화 질서는 상당히 퇴조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세계질서와 관련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대안적 질서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극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극질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세계질서 구축에서 미국만의 질서가 아니라 주요강대국들이 함께 구축하는 질서로 그것을 이해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러시아는 '다극질서'를 보다 지역적 의미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작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강대국들은 자기 지역 내에서 그 나름의 이해를 구현하는 지역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러시아는 유라시아 질서를 주도해가는 강대국으로서 그 영향권을 일정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중국 역시 중국대로 자신의 영향권을 만들어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서로를 지지·협력하며 다지역적 질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질서가 서방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반하는 이단적 질서라는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몰아붙이게 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하여 서방의 도전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며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다극적-다지역주의 질서 구축을 위한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안보 이슈는 연성 영역과 경성 영역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이제는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가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고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보 이슈의 경직화는 지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지적 분쟁들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지점은 미국이 유럽 문제를 덜 신경을 쓰면서 아시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의 양면전을 염두에 둔 군사안보전략을 탈냉전 이후에 상당 부분 수정했으며 심지어 중동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다시 유럽, 중동, 아시아 방면에서 최소 두 전장을 고려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전략적 경쟁도 새롭게 재조정되면서 상당히 갈등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보 이슈의 경직화와 냉전 질서 형성 때 따른 미중 전략경쟁이 어우러지면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즉 냉전 시기와 유사한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의 지정학적 대립구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갈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6.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두 개의 다른 지괴가 서로 부딪히는 지질학적 단층대는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각각의 지괴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 이 단층대가 요동치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세력권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력권이 상이한 질서나 가치를 지향하는 경우,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다지역적인 지정학적 현실주의가 충돌하는 현재와 같은 경우, 이 단층대 위에 놓인 국가들은 심각한 외교안보적으로 딜레마적 압력에 노출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단층대의 지정학적 압력이 높아지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 충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있는 중간국들은 이런 위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

지정학적 단층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외교안보 정책은 친서방과 친러시아라는 두 지향 사이에서 균형점이 급속하게 변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외교안보적 균형점의 변동은 내부적 분열을 야기하고, 이 분열은 양측의 강대국으로부터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적 균형점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데 따라 자국의 이익-비용이 달라지는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고착시키기 위해 적극적 또는 호전적 정책들을 강구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언제든 한국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안보정책에서 급속한 균형점의 변동을 주의하고, 환경과 국가의 능력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절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도 나름대로 외교적인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양쪽의 압력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또는 소화해낼 수 있는 자율성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단층대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외교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정치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취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체성에 기반한 균형적 외교를 정립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의 국내 정치적 합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외교안보 정책을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주변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필자 소개 신 범 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국제문제연구소 북한안보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국제정치 및 비교지역연구, 유라시아 국제관계, 러시아 외교정책, 동북아 지역협력, 환경에너지 국제정치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유라시아의 도전과 국제관계(2007)』,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2015)』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2017)』가 있다.